

“전남 특성 맞는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발굴”

김 지사 “정부 규제특례 확대 대응” 신규시책 발굴·정책비전 연구 주력 “의대공모 도민혜택 최상방안 도출” 출생수당, 기본수당 개념 전환 추진

전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서재필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인구감소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받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알아서 규제 특례를 만들어주진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나, 관에서 하는 규제로 민간에 피해가 가는 것들을 살피는 등 전남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특례를 잘 관리해 권한을 받아내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도정 변화를 이끌 신규시책 발굴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에 발표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외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달라”며 “시군 정책비전도 정책자문위나 전남연구원 등 전문가와 도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밀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자동화시대엔 일자리 불안감 때문에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출생에서부터 아이, 청소년기까지 지원하는 출생수당을 ‘출생 기본수당’ 개념으로 추진하는 등 기존 사업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도민에게 이익이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도 “전남지역에 간간히 200mm 가까이 많은 비가 왔으나 전 직원과 시군, 소방, 경찰 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큰 피해가 없었다”며 “피해가 크지 않으나 피해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것이니만큼 도민의 시선에 맞춰 피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관련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에 대해서는 “지역내 총생산이 5.6~19.0% 증가하고 고용도 1만9000~6만5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남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앞으로 국가산단 조성 등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 100(RE100) 관련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다독였다.

또 전남 국립의대 공모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추진하는 전남 의과대학 공모 설립방식위원회의 사전설명회가 어느 도민이든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도민이 가장 원하고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nilbo.com



광주시의회, 당선 축하 화분 기부 신수정(왼쪽에서 세번째) 광주시의회 의장과 제9대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들이 22일 광주시의회에서 당선 축하 화분 200개를 광주재능기부센터에 기부하고 있다. 광주재능기부센터는 기부된 화분을 저렴하게 판매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쓸 예정이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19억 투입... 전국 최초 전액 도비 어선어업 경영비 부담 완화 기대

전남도가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예비비 19억원을 투입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 이는 전국 최초 전액 도비 지원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여름철 물놀이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

광주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8월 말까지 광주시역 물놀이 시설 3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 대상 33개소는 지역에서 쉽고 편하게 여름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하천 등 내수면 2개소, 임시 물놀이 시설 7개소,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24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자치구, 민간전문가,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안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

광주시 사회재난과가 보유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육안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위치 적정성 △노후·훼손 안전시설 확인 △안전요원 근무실태 확인 △배수장치 출입문 잠김 상태 △기타 물놀이시설 주변 관리상태 및 위험요소 확인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신속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을 제한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손천만 순천시